

원 고 청 탁 서

수신 : 박영숙 선생님

발신 : 여성환경연대

담당 : 이안소영

전체 기획의도 및 목차

첨부한 무크지 발간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무크지는 여성환경운동의 이론적·실천적 지형을 넓히기 위한 담론확산의 장으로서 역할하며, 젠더관점의 환경운동 실천 및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목적을 갖고 준비 중에 있으며 2004년 12월에 창간 준비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본 창간준비호의 목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특집기사로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전망과 과제>>라는 부분과 지역 풀뿌리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에서 이슈나 쟁점이 될만한 사례들을 싣는 <<삶의 터전을 일구는 여성들>>입니다. 각지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고민과 활동을 둘러보면서 여성환경운동이 향후 5년 혹은 10년의 전망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려 합니다.

<<삶의 터전을 일구는 여성들>>은 근래 몇 년간 여성환경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는 몇몇 분야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하거나 쟁점이 될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글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마을공동체” “생협, 지역운동, 여성” “여성과 녹색리더십” “녹색정치와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더 시사적인 글 몇편과 살아가면서 느끼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함께 실을 생각입니다. 웰빙바람 등과 현재의 소비자 물류공급중심의 환경운동을 성찰해보는 글과 환경분야에서 일하는 국내외 여성활동가들을 시리즈로 소개하는 글, 어떤 에코페미니스트의 시골살이, 중국 여성환경운동에서의 사위일체 사상 등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청탁글(발간사)의 기획의도

이번 12월에 내게 되는 무크지의 제목은 “여성, 녹색세상을 말하다” 입니다. 제목은 10월 한달동안 여성환경연대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채택된 것입니다. 무크지의 제목으로 다소 긴 느낌이 있지만, 무크지가 담고자 하는 생각과 글들을 잘 드러내주는 것 같아 사무국에서 의논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무크지는 창간준비호에 해당하고,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후 수정보완하여, 내년 2005년에 창간호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숙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글은 책의 발간사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무크지 발간기획서 및 원고청탁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무크지 발간의 의미나 필요성, 여성환경운동 전반에 대한 고민과 향후 과제, 선생님의 개인적인 소회나 의견 등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내용과 형식에서 되도록 자유롭게 발간사를 써 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1. 마감일 : 2004. 12. 5.
2.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5-7매 내외(A4 용지 4분의 3정도이거나 한 장 정도)
3. 원고 보내실 곳 : leeansy@dreamwiz.com, leeansy@hanmail.net
간혹 메일남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두 군데 같이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생태여성주의 무크지를 기획하며

1. 발간취지

여성환경연대가 여성환경운동의 성과 및 경험의 공유와 여성환경활동가들의 역량강화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전국적인 여성활동가 네트워크로 출발한 지 어언 5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간에 여성환경연대는 환경운동 진영내에서 여성환경활동가들의 전문성 강화 및 리더십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으며, 젠더 관점에서 환경실천 및 환경정책과 이슈들을 재평가하고 문제제기하는 등 여성주의적 시각과 생태주의를 통합해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같은 지난 5년간의 활동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없었던 여성환경활동가들을 젠더라는 공동의 관심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로 한데 모아냈으며, 여성의 목소리와 삶의 경험을 통해 세계를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중요성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공감하게 하였고, 환경운동 진영내에서 이에 대한 정당성을 일정하게 확보해 내는 등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잇고 앞으로 펼쳐질 5년(혹은 10년)을 내다보며 여성환경운동의 질적 발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운동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그곳에서 지혜와 용기를 얻는 것뿐 아니라, 현재적 성과와 과제 속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섬세한 대안을 고민하고 촘촘하게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 여성주의와 생태주의적 관점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정도의 일반론적 공간대를 확인하거나 확산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여성환경운동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대안가치인 여성주의와 생태주의가 일상세계에서 어떻게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도 깊이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연 1-2회의 워크숍이나 포럼,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간간히 수행되는 작업만으로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속적인 고민의 축적과 다양한 인적 자원의 결집,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사회구성원리를 탄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밑거름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 자원과 이슈가 집중되어 있는 몇몇 한정된 영역과 조직을 벗어나 지역과 세대, 활동영역 등의 물리적 한계와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매체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여성환경연대는 생태여성주의를 표방한 비정기 연간 무크지를 발간하고자 한다. 현재 기획되고 있는 무크지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 여성환경실천의 이론적·실천적 지형을 넓히기 위한 담론확산의 장으로서의 역할
- ▶ 젠더관점의 환경운동 실천 및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기능

- ▶ 여성환경운동에 관심있는 전문가 및 활동가들의 인적 풀(pool) 강화하고 네트워크 형성
- ▶ 축적되지 못하는 여성환경운동의 성과와 경험을 모아 이론화 작업 향후 발전된 역할모델로 제시
- ▶ 지면을 통하여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토론과 정책개발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지역 풀뿌리 여성 환경활동가들의 적극적 참여와 공유의 장 마련

2. 발간예정 무크지의 성격

- 여성환경연대가 발간하는 정책및 연구 전문지
- 2004년 말에 발간될 무크지는 창간준비호의 성격을 지님
- 이후 1년에 최소 1회 발행되는 비정기 무크지로 기획함

3. 예상 주 독자층

여성환경운동 및 에코페미니즘에 관심있는 단체 활동가 및 연구자, 학생 등

4. 발간일정

2004년 12월 발간 예정